韓語朗讀稿 - 乙組講稿

저는 한국 사람이 좋아서 한국에 왔습니다.저는 3 년 전에 혼자 남미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 사람을 한 명 만났습니다.같은 동양 사람인 우리는 금방 친구가 되었고 3 주 동안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.이 친구 때문에 저는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.

남미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 가기로 결심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.2 년 동안 한국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.그렇게 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한국에서의 생활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.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것,한국 음식을 먹는 것,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,모든 것이 새롭고 즐거웠습니다.

그런데 한국에 온 지 여섯 달이 지났지만 아직 한국말은 잘 못해서 조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.한국말을 더 잘 알아듣고,하고 싶은 말도 더 잘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그렇게 하면 한국을,한국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그래서 이제부터는 노는 것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.